

수능 국어

입문자를 위한

문학개념어 정리

수사법

직유법: 같이 '처럼'-인 듯(양)' 등을 사용하여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비유법  
Ex)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은유법: 'A는 B이다.'의 형태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견주어 표현하는 비유법  
Ex) 너는 나의 세상이다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비유법  
Ex) 꽃이 내게 말을 건넨다

의성법: 사물이나 사람의 소리를 그대로 묘사하여 실제와 같이 표현하는 비유법  
Ex) 물은 졸졸 흐르고, 짹짹 해는 비치고

의태법: 사람이나 사물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여 표현하는 비유법  
Ex) 바글바글한 사람들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비유법  
Ex)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Ex) 산 넘어 강으로 가는 바람이 숨을 죽이며 걷는구나

환유법: 어떤 사물을, 그것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낱말을 빌려서 표현하는 비유법  
Ex) 나 보다가 역여워 가실 때에는  
Ex) 해는 서산마루에 걸려있다



과장법: 사물의수량, 상태, 성질 또는 글의내용을 실제보다 더늘리거나 줄여서 표현하는 강조법.

Ex) 쥐꼬리만한 월급 봉투

Ex) 백만년이 지나도 너를 좋아할거야

반복법: 같은단어나 구절, 문장을 반복하여 뜻을 강조법.

Ex)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없이 꽃이 피네

열거법: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계열의 구절이나 그 내용을 늘어놓음으로써 서술하는 내용을 강조법.

Ex) 벌써 아가 어머니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이름과,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스' 라이나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대조법: 서로 다른 내용이나 감각을 맞세워 강조하거나 선명한 인상을 주려는 강조법

Ex) 어두운 도시에 빛나는 그대여

Ex)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려야 한다.

연쇄법: 앞구절의 말을 다시 다음 구절에 연결시켜 연쇄적으로 이어가는 강조법.

Ex) 흰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위에 고이 서리다

영탄법: 벅찬 감정을 강조하여 표현, 고조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감탄의 형태로 드러내는 강조법.

감탄사:'아, 오. 아아, 오호라, 어즈버' 등

호격조사: '아, 야, 이여, 이시여' 등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아라/어라, -구나, -도다, -구려, -가 ' 등 이러한 대표적 어미

Ex) 두볼에 흐르는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Ex) 아아 아름다운 그대여

Ex) 진심으로 어여쁘도다



도치법: 문장성분의 순서를 바꾸어서 내용을 강조하는 변화법

Ex) 별이 쏟아지는 밤, 나는 홀로 서 있네

대구법: 비슷한가락을 병치시켜 대립의 흥미를 일으키는 변화법

Ex)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설의법: 서술문으로 표현해 나가다가 결론에서 의문형식으로 써 강조하는 변화법

Ex) 누가 꽃잎에 내리는 빗방울을 세어 보았는가?

반어법: 표현할 내용과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나타내는 변화법

Ex) 너 안좋아함

Ex) 따스한 햇살 아래, 나는 얼어붙었네

역설법: 모순된 어법을 통해 진리를 진술하는 변화법

반어의 경우 문장에는 모순이 없지만 의미에 모순이 생기는 반면, 역설은 문장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점에서 반어와 차이가 있음

Ex) 잃어버려야 비로소 얻는다

Ex)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 그러나 너를 사랑한다



○○적 모음

회의적: 어떤 일에 의심을 품는 것.

낙관적: 앞으로 일이 잘 될거라고 보는 것.

비관적: 앞으로 일이 잘 안될거라고 보는 것.

관조적: 관찰자 입장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것.

의지적: 상황에 대한 극복의 태도를 나타내거나 상황을 변화 시키려는 실천적 행동을 보이는 것.

관념적/추상적: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형태의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입체적: 삼차원의 공간적 부피를 가진 물체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것.

단정적: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자조적 : 자기를 비웃는 말투 또는 씩씩한 감정을 느끼는 것.

고백적 : 마음에 품은 생각을 거리낌없이 말하는 것.

심미적: 미를 밝히려거나 추구하는 것.

점층적:점진적으로 어구를 겹쳐 가면서 문장의 포괄적인 내용과 뜻을 넓혀 중심 주제로 이끌어 가는 것.

비관론적: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

진취적: 새로운 것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애상적: 슬프고 애달픈 감정을 나타내는 것.

반어적: 본래의 뜻과 반대로 말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것.

일상적: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생활과 관련된 것.

환상적: 현실과 동떨어진 꿈이나 상상 속의 세계와 관련된 것.



명령적: 명령하는 것과 같이 강제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나 어투를 표현하는 것.

이상적: 현실과는 다르게 완벽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

세속적: 세상의 이치에 따라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

우의적: 친구 사이와 같이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





# 평가원 빈출 선지 모음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 : 수능에서 틀린 선지로 빈출. 화자의 위치가 그대로일 때, 표현하는 '대상만' 먼 것에서 가까운 것으로 바뀌어야 함. 이때 화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원경이 확실히 먼 것(구름, 별, 달, 해 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함.

말을 건네는 방식 : 청자(사람, 사물, 동물 등)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야 함.

대화의 형식, 대화적 구성 : 화자와 다른 이가 말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함. 보통 시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소설에서는 이야기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준다.

색채 이미지 : 색채를 연상시키는 시어도 색채 이미지가 될 수 있으나, 색채어(빨간, 파란 등)가 아닌 색채 이미지를 물어보는 기질이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색채어와 같다고 생각해도 될 듯.

계절적 배경 : 시에서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는 말이 나왔을 경우, 그 시의 전체적인 배경 자체가 확실해야만 맞음.

외양 묘사를 통해 : 인물의 생김새를 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나, 해당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에 선지로 적합함.

요약적 제시, 요약적 서술, 압축적으로 제시 : 소설에서,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난 일을 몇 줄의 설명으로 간단히 설명하는 경우.

공간의 입체감 :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 안에 여러 사물들을 묘사함으로써 작품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것을 말한다.

현재형 시제 : 문법적으로, 서술어의 기본형이나, 선어말어미-ㄴ, -ㄴ다-를 사용한 문장. 문학에서는 당장 사건이 일어나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나란히(병렬적으로) 배치 : 할리우드 영화처럼,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교차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의 대조, 공간의 대비 : 두 개의 상징적인 공간이 제시되고, 그 둘이 나타내는 바가 정반대여야 함.

언어 유희: 언어 유희 또는 말장난이란 동음이의어나 각운 등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꾸미는 말의 표현을 의미함

##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봄: 이화(배꽃), 도화(복숭아꽃), 화(살구꽃), 세우(가랑비,봄비), 녹양방초(푸른 버들과 꽃), 삼월동풍(봄바람), 일지춘심(나뭇가지에 서린 봄기운)

여름: 녹음(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나 수풀), 소낙비(소나기)

가을: 서리, 국화, 추풍, 낙엽, 황색 계통의 이미지(벼가 익은 들판의 묘사)

겨울: 매화, 얼음, 추위를 가리키는 시어, 설,백설,은산(모두 눈을 가리킴)



## 말을 건네는 방식

	화자의 말투		
	독백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
청자의 존재	X	○	○
청자의 반응	X	X	○

공감각적 심상: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한 심상, 쉽게 말해, 어떤 대상이 지닌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변화(전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00의 00화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 부드러운 햇살이(시각)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었다(촉각)

▶ 시각의 촉각화

Ex) 햇살처럼 밝게 빛나는(시각) 목소리가 들려오는(청각)

▶ 청각의 시각화

Ex) 서늘한 얼음장같은(촉각) 불호령이 떨어졌다(청각)

▶ 청각의 촉각화

Ex) 바닷가의 짹짹한 소금 냄새는(후각) 하얀 포말이 부서지는 파도처럼 느껴졌다(시각)

▶ 후각의 시각화

🔴 감각이 여러 개가 나타나더라도 전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를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없다.

Ex) 광장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청각) 퍼지는 음식냄새(후각)

